

공동체 소식



연중 제16주일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매일미사 책 113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7/24: 성 사르벨리오 마클루프 사제,

7/25: 성 야고보 사도,

7/26: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7/29: 성녀 마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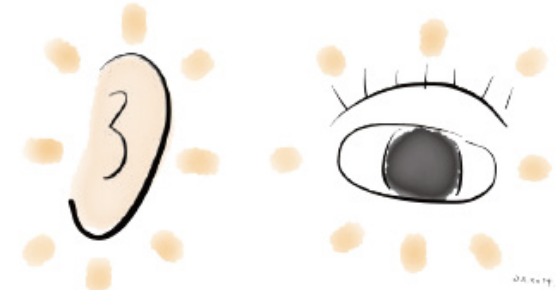
■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소리

"구약 성경은 들음과 봄의 두 가지 인식을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뵈고자 하는 갈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개인적 부르심과 순명을 강조하고, 진리는 시간 안에 계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보는 것은 여정 전체에 대한 온전한 전망을 마련해 주고 하느님의 커다란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앙의 빛」 29항 | 그림 임의준 신부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26	340	498	33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조지연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조지연, 김지혜, 장유정
차 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내익 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7/16	48명	308달러	1,350달러
김대성, 김대연, 김지혜 안병환, 홍순익 (총5세대)			

연중 제16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7월 23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내로 우리를 붙드시어, 교회의 씨앗이며 누룩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나라의 해처럼 빛나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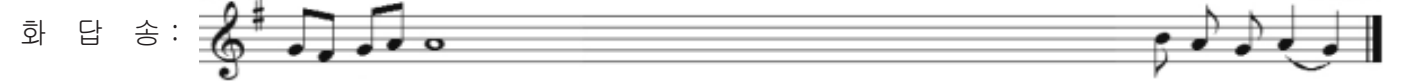
그림 묵상

보물을 찾은 사람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복음의 내용은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투신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진정한보물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2,13.16-19
<하느님께서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26-27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43<또는 13,24-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참된 의인이 되는 길



종종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이 세상의 악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행복하게 사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도 던지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시는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내버려 두시면서 당신 백성에게는 왜 이렇게 모지신가?

오늘 제1독서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며,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지혜 12,13)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당신이 개입하고자 하실 때만 세상에 개입하는 분이시지, 다른 무엇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결정에 불평을 터트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누군가가 불평한다고 해서 그에게 당신이 불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 힘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불신하는 이들의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기 위함이지, 당신께 불평을 터트리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지혜서는 이 점을 알고 모든 것이 하느님 손에 달려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지혜 12,19) 하느님께서서는 불의한 이들을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그냥 없다고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때를 기다려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화답송이 노래하듯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들에게 한없이 어질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큰 처벌을 마련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 하느님은 불의를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도 바로 이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 두셨기에 우리 가운데 밀은 구원으로, 가라지는 파멸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 마지막까지 모두가 당신에게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아직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가서 다 자라 보아야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하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사람의 아들이 뿌려놓은 좋은 밀알들이기 때문입니다.(마태 13,27) 그러니 가라지가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서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해주실 것입니다.(로마 8,26-27) 이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의 지혜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권고합니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지혜 12,19)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의인이야말로 진정 하느님께서 뿌리신 좋은 밀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님이 뿌리신 밀알들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돌아서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 다른 이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의인이 됩시다.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칭호를 사용한 이유는, 각각의 칭호가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 하나의 칭호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지도자로 뽑으신 임금, 사제, 예언자가 취임하는 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

우리는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묵시 5,6)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도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 ‘사람의 아

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70번이나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는 대명사 대신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종말에 나타나 만민을 심판할 천상의 주권자를 뜻합니다.(다니 7,13-14 참조)

‘말씀(로고스)’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요한 1,1 참조) 곧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곧 하느님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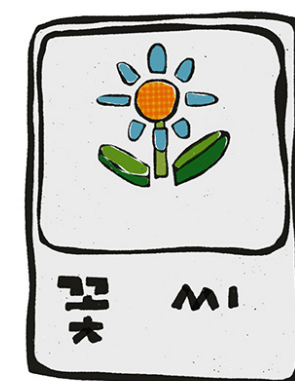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꽃씨

꽃씨를 사보셨나요?
봉투 겉면에 꽃이 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꽃씨를 뿌려보셨나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 쓰이죠.
꽃을 피워보셨나요?
꽃씨 봉투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죠.
늘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꽃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피어오를 아름다운 꽃을 기다리며,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 13,30)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